

장하진 여성부장관 취임 축하의 말 김선옥 법제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하진 여성부장관님, 김선옥 법제처장님 두분의 장관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부 등 4개 부처에 여성장관이 동시에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전용 부처였던 법무부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장관이 임명되는 것을 보며 크게 환영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적어도 2년 반은 함께 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여성장관들을 조기 퇴임시킨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장관들이 전문가로서의 능력 발휘, 카리스마 넘치는 업무추진 등으로 여성의 고위공직자로서의 능력을 확실히 검증해낸 것에 대해 여성계가 그 분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잦은 개각과 저조한 여성의 고위직 진출비율을 우려하면서도 다른 한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법제 및 사법 행정 업무에 여성이 참여할 문호를 폭넓게 열었다는 점입니다. 첫 여성 법무장관이 배출되었는가 하면 첫 여성 헌법재판관, 첫 여성 대법관, 그리고 첫 여성 법제처장이 탄생한 것은 참여정부가 한 일입니다. 특히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는 법제정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제처장에 여성이 임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양성평등세상을 앞당기게 할 법사업무에 '성인지성' 확산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월 4일 단행된 정부의 부분개각으로 새로 취임하신 두 장관님께 우리는 특별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유는 두 분의 의욕적인 취임인사에서 비롯됩니다. 제3대 여성부장관이신 장하진 장관의 경우 여성노동과 소외계층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진보적 사회학자로서 최근 우리 정부와 사회가 ‘올인’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의 고용확대노력에 힘쓰겠다고 한 것은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성과 있게 성취해내기 위해 앞으로 여성부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 등의 확대와 방과 후 교육시설도입과 남녀차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 등의 대책에 있어 취임 직후 유럽을 방문한 용기로 타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선옥 처장의 경우 남성들의 전용무대였던 부처에서 첫 여성수장으로서 새롭게 헤쳐 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여성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정부의 법 체제에 성별특성을 이해하는 ‘성인지 정책’ 관점을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사라는 데서 기대를 갖습니다. 눈길 가는 곳마다 성인지적 관점을 투입하겠다고 하며 법과 여성을 접목시켜서 여성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한 점이 믿음직스럽습니다.

두 장관님의 의욕적인 포부를 실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을 주장해서 성취해내는 데에는 태부족인 소수자로서의 약함은 배후에 진을 치고 있는 여성계와

연대하여 힘을 얻으세요.

여성계는 비록 지난 총선에서 여성의 국회진출을 5.7%에서 13%인 40명으로 증가시켰다고는 하나 아직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확대의 과제는 먼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부처진출에 있어서도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재정부 등으로 확대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두 장관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여성계와 연대해서 해내야 하는 과제입니다.

장관님들 너무 일만 하시지 마세요. 즐길 수 있는 여유도 가지고 일하세요. 끝으로 장관님들의 건승을 빌며 하객 여러분의 행운도 바랍니다.